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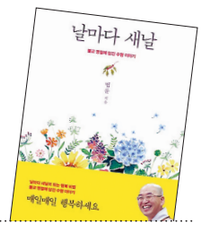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14~2015.7.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3	알기쉬운 쑥쑥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4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5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6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9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10	깨달은 절수행이란?(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청견스님	다르마킹



행복 위해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불법 진리 체득"



날마다 새날

법륜 스님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 1천원

불교명절에 담긴 고유 의미 설명
기념해야하는 의미 자세히 해설
불법 자각하는 중요한 밑거름
인생 새 계기 삼는데 안성맞춤

저자인 법륜 스님〈오른쪽 사진〉은 해마다 정초, 입춘, 백중, 동지와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에 이르는 불교 명절마다 이 날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왜 불가서 이 날들을 기념하는지 법문을 해왔다. 스님이 전하는 불교 명절과 문화 속에 담긴 이야기는 불자는 물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집중한다.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혹은 자신의 생일, 기념일에 의미를 담아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삼아보고 싶은 사람들, 조금은 다른 삶을 시도해 보고자 마음을 낸 사람들이 펼쳐들면 좋은 책이다. 법륜 스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은 '불법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불법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 같음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교의 명절을 통하여 불법의 의미, 불법의 위대함, 불법의 소중함,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숙여진 고개가 세워지고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고 감았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세상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여자라서, 대학을 못 나와서, 신체장애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혼자 살아서, 피부 빛깔이 달라서 라는 등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계기는 누군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을 통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한다. 원래 그 진실, 진리 그대로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이 천명한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대로 존귀하다'는 말대로 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참 뜻이 되는 것이고 불교 명절의 현대적 의미가 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 명절의 본래 의미들〉

1. 정초=행복 첫단추 끼우는 기도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는 '나 혼자만'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병든 사람을 생각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좀 더 넓게, 크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과보는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2. 입춘=깨달음의 새 길목 시작

입춘 뒤에는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얼음이 녹습니다. 입춘 뒤에 내리는 비가 구석진 곳의 눈을 녹이듯, 고비를 넘긴 수행자는 실수를 해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3. 봉축=나를 사랑하는 자, 붓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연등 달고 행사하는 것은 축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이보다 우리 스스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말문이 틔고 허리가 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새로 태어나는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4. 출가일=돌아갈 집 불살라라

결혼해서 직장 생활 하고, 부모나 자식과 같이 살아도 가족이 귀찮지 않고, 돈을 벌든 안 벌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는 삶, 같이 살 때 행복하고 이별해도 슬프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출가의 삶입니다.

5. 성도일=길을 열어 함께 가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더라도 부처님 혼자만 해탈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열반에 드셨으면 성도일이 부처님에게는 좋은 날일지는 몰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도 후,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6. 열반일=여래, 깨달음의 지혜

열반은 '제일 기쁘다'는 뜻입니다. 가장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가장 괴로운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면 살아 있는 다른 날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전부 다 기쁨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7. 백중=참회하고, 법을 깨치라

붓다는 진리를 깨쳤기에 삶과 죽음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만 출렁거리는 바다처럼 물끄러미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꺼이 잘살다가 파도가 일어났다 사그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때가 되면 아무 두려움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 역시 이 도리를 깨친다면 즉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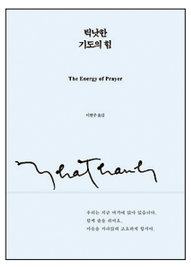
8. 동지=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동지에는 봄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을 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추위가 아직 남았지만 이제는 봄이 올 가능성이,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지는 우리의 문화가 되었지만 수행자라면 마땅히 수행적 관점에서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한의 추위가 앞으로 남아 있지만 동지를 지나면 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수행적 관점에서도 동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주일 기자

기도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과 답

틱낫한 기도의 힘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 불광 펴냄 | 1만 3천원



저자는 이 책에서 평소 기도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들어온 질문 다섯 가지와 그에 대한 답을 진솔히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품곤 하는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고 참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가 선명히 다가온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고 난 후에는 기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떨림이 느껴진다. 그럼 그 다섯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하나, 기도는 정말 이뤄지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기도는 이뤄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의 차원에서 보면, 진실한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집니다.

둘, 기도를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인가요?

-믿음, 자비,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기도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셋, 기도가 이뤄 내는 건 무엇인가요?

-기도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신앙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무대를 열어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기도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무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 믿음이 약하면 기도에 효험이 없을까요?

-기도가 만들어 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약하더라도 기도는 분명 효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무언가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세상을 향한 사랑이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사랑은 무언가를 바꿔 놓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자기 안에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지요. 물론 믿음이 강하면 변화는 더 클 것입니다.

다섯,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불교에서는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조상님이든 해든 달이든, 모든 것은 기도하는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아울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기도를 떠받치는 세 기둥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마음챙김(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어 있는 의식으로 온전히 알아차리기), 집중, 깨달음이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 수행을 통해 이르게 되는 신비하고 고매한 경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물은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나와 하느님, 나와 부처님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나는 물론이고 소나무, 달, 별에게도 그 분들이 지닌 사랑과 마음챙김과 지혜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마음챙김, 집중, 깨달음이 함께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에 마음챙김과 집중과 깨달음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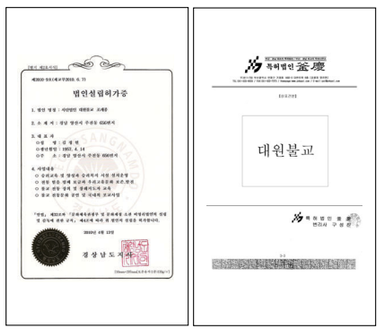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 무 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